

해남군 김치 표준화 레시피 개발...수도권 공략

참쌀죽 대신 밤호박 분말 첨가...지역 생산업체에 기술 이전

해남군이 수도권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김치 레시피를 개발했다.

해남군은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화원농협, 북평 동해리 김치정보화 마을 등 관내 8개 업체, 유관 부서장, 세계김치연구소가 참석한 가운데 '김치표준화 기술 이전식'을 했다.

군은 그동안 세계김치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표준화된 김치 레시피를 연구개발해 왔다. 김치명인과 전통식품 대표, 김치전공 교수, 식품기업 관계자 등의 평가를 통해 3종을 선정해 1차 전문가 품평회에 이어 2차 관내 김치 생산업체 평가를 거쳐 최종 레시피를 선정했다.

최종 레시피는 시장 규모가 큰 수도권의 고객을 주요 대상으로 깔끔하고 시원한 맛이 특징인 중부

식 김치(소금 간이 약하고 찜갈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중부지방 김치)로 염도를 낮추고 생것갈을 제외한 액젓과 새우젓만을 사용했다.

특히 참쌀죽 없이 해남 건강식재료인 밤호박 분말을 첨가해 맛 좋고 차별화된 해남 김치 양념을 개발했다.

또 김치 과학화와 균일한 맛을 내기 위한 표준화를 통해 김치업체는 품질을 높이는데 집중하도록 당도, 염도, 색도 등 이화학 분석 기준을 마련했다.

해남군은 전국 최대 생산량을 차지하고 있는 해남배추 산업 활성화와 국산김치 소비확산을 위해 표준 레시피를 지역 생산업체에 이전한다.

또 김치 원료공급단지 및 김치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국산김치 사용 범군민운동 등을 통



해남군은 김치 전공 교수와 식품기업 관계자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해남김치 표준화 레시피를 최종 선정했다. <해남군 제공>

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확산 등 국산 김치 소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김치수출 및 대표 K푸드로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제반 여건 마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지역특산물인 배추를 이용한 김치 세계화와 국산김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

해 이번 김치표준 레시피 개발에 나서게 됐다"면서 "우리지역 배추생산자, 김치 및 절임배추 생산업체가 함께 김치 원료공급단지 유치는 물론 김치 종주국 위상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여수시, 10대 대표 섬 선정 1위 금오도...오동도·거문도 순

여수시가 2026 여수 세계섬박람회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 여수를 대표하는 10대 섬을 선정했다.

여수를 대표하는 섬 1위에는 도보여행으로 유명한 금오도(사진)가 선정됐으며, 2위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오동도가 뽑혔다. 3위는 신이 내린 천혜의 비경으로 알려진 거문도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돌산도와 낭도, 백도, 사도, 하화도, 장도, 여자도가 대표 섬에 이름을 올렸다.

여수시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1차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민과 공무원 등 2천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10대 대표 섬을 선정했다.

여수시는 10대 섬을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와 섬 관광 활성화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여수=김정화 기자 chkim@

“담양 슬로시티 방해하는 예비군 사격장 이전하라”

창평 주민들 “정주 여건 장애 초래...국방부, 주민과 소통해야”

담양 창평면 주민들이 예비군훈련장·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창평 소재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창평비대위)에 따르면 창평비대위는 지난 28일 창평면 슬로시티 건강증진센터에서 종교·사회단체 관계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이전을 본격적으로 요구하기로 했다.

창평비대위 고민석 공동대표는 “1981년 창평면 삼천리에 들어선 훈련장과 사격장 총소리 등 때문에 아시아 최초로 지정된 슬로시티(창평리·삼천리 일대)가 지장을 받고, 인근 농가와 전원주택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등 정주 여건에 장애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훈련장과 사격장 주변 1200여 가구, 3000여 명이 총소리 등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일부 귀농·귀

촌한 주민들이 도시로 ‘유턴’한다고 대표들은 전했다.

고 대표는 “일제강점기 때 창평면 주민들이 창평 공립보통학교 운영비를 마련하고자 땅을 기증했는데 세월이 흘러 그 땅이 국방부로 넘어가면서 현재의 훈련장과 사격장이 들어서게 됐다”며 “창평면 주민들은 그간 임진왜란과 구한말 의병·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자부심으로 사격장의 총소리를 참아왔는데 이제는 더는 참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고 대표는 “국방 당국은 국방기밀이라면서 밝히

진 않고 있지만, 국방개혁 2.0에 따라 훈련장과 사격장 훈련 규모를 늘린다는 말이 있는데,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주민들과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며 국방부가 ‘민·군 상생’을 실천해달라고 요구했다.

창평비대위는 앞으로 훈련장·사격장 이전을 촉구하기 위해 국방부, 육군본부 등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예비군 훈련장·사격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민들과 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신안군 지도 태양광 배당금 첫 지급

1인당 11만원~35만원

신안군이 안좌·자라도에 이어 세 번째로 지도에서 첫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도 100MW 태양광 발전사업의 수익금을 지도 본도 3512명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5~11만원을 33개 마을 경로당에서 일제히 지급했다.

지도 태천마을의 경우 ‘신안군 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가중치 1을 추가해 이익금을 지급, 8인 가구의 이모씨는 208만원으로 최고 배당금을 수령했다.

이날 배당금을 지급한 지도는 올 한해 전입자만 무려 324명으로 다른 곳에 비해 인구 유입이 가장 많았다.

특히 만 40세 이하 청년 전입을 위해 전입 즉시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청년층 전입이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은 내년 4월 중 사육도에도 태양광 이익 배당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2022년에는 안좌도 200MW, 임자면 100MW, 중도면 100MW, 23년 비금면 300MW 등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 태양광 이익배당금을 확대 지급할 계획이 있다.

군은 신안해상풍력 8.2GW가 2030년 완료되면 전 군민에게 1년간 1인당 600여만원의 해상풍력발전소 이익 배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의 무한 자원인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정책, 귀어·귀촌 지원정책 등 소득향상으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신안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se@kwangju.co.kr

목포 ‘점빵 공연’ 통했다

세계마당페스티벌 성료...순대국밥집 첼로 연주 등 호응

극단 ‘갯돌’이 주최한 ‘제21회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감됐다.

시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신선행 프로그램을 설계해 성공한 축제로 평가받았다.

페스티벌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목포 원도심 수문로 일대 상가 점포에서 열렸다.

점빵 전야제, 개막놀이, 점빵 공연, 참기름 콘서트, 수문로 옛 사진전 등 총 10개의 프로그램과 42팀의 공연이 펼쳐졌다.

페스티벌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 거리축제를 벗어나 수문로 상가점포 안에서 ‘점빵 공연’이 열려 점포마다 발 디딜 틈 없이 관객을 가득 메웠다.

순대국밥집에서 첼로 연주를 하고 안경점에서

성악연주를, 카페에서 서커스를 하는 등 참신한 축제공간을 마련해 인기리에 열렸다.

수문로 방앗간에서 열리는 ‘참기름 콘서트’는 독특한 튀는 색다른 발상으로 관람객과 인물의 주목을 받으며 스타급 콘텐츠로 부상했다.

세계마당페스티벌 성공에 대해 손재오 예술총감독은 “수문로 거리를 재발견하고 축제를 통해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빵 공연 같은 형식이 도시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살아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kwangju.co.kr

전기차 환경부 무상보조 실시 중!

전기종 -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장착(10년 사용), 가정용220V로 충전, 원동기 면허로 운전



에코EV102

2인승
오토바이
핸들방식

최대속도 50km
주행거리 10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833만원	303만원	48만원	482만원



나이스3L (캐노피 1만원)

적재중량
200kg

최대속도 47km
주행거리 9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도내생산보조금	본인부담금
650만원	330만원	48만원	272만원



나이스1L

안전필수
전복방지(틸팅)
기능

최대속도 60km
주행거리 50km

판매가격	무상보조금	본인부담금
462만원	330만원	132만원

emart 이마트 광주점(광주터미널점) 전시 중!



친환경전기차 전라남도 대표 생산기업!

DAEPOONG

본사·공장 : 전남 영광군 대마면 전기차로 133 (대마 전기자동차산업단지 내)

상담 문의

061) 352-3010 (내선2번)

061) 872-8880, 1

고 흥 지 사 010-2548-7111

나 주 대 리 점 010-3626-3848

장 성 대 리 점 010-2819-3546

전 남 동 부 권 역 010-2450-1954

광 양 대 리 점 010-5355-1292

함 평 대 리 점 010-2602-6051

광 주 · 영 광 010-3925-2181

전 남 서 부 권 역 010-3647-9709

전국대리점 / 취급점 문의

010-2034-0141